

# 비행 청소년의 父母觀 인식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Junvenile Delinquents' View of Parental Attitudes

誠信女子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大學院生 張 善 景

副 教 授 金 周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Seon Kyung Chang**

Associate Prof.; **Joo Hee Kim**

###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rental attitudes perceived by juvenile delinqu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 on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juvenile delinquents' view of parental attitudes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 and the motive of delinquency, 3) the content and the motive of delinquency in accordance with the juvenile delinquents' view of parental attitudes.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318 juvenile delinquents who were in the custody of the institution in An-Yang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 sheets were used. Of 318 questionnaire sheets, 221 sheets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t-test, x-test, and F-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juvenile delinquents' view of their fathers in accordance with their fathers' age. Namely, the younger the father is, the more the juvenile delinquent wants his father to be less negativ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juvenile delinquents' view of their mothers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step-sibling. Juveniles with step-siblings deny their mothers' inconsistent attitude more than the juveniles without a step-sibling.

2. The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content of juvenile delinquency are juvenile's age, the degree of education, the father's age, the style of possessing

house and the region of a dwelling. The motive of delinquency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juvenile's age.

3.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iew of parental attitudes and the content and the motive of delinquenc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ther's protective attitude, and the content of delinquency as well as in the mother's positive denial, her rigid control, her inconsistent attitude and the content of delinquency.

The subordinate domains are opposite to the traditional conception that the father is stern and the mother is permissive. Today our society encourages the parents' equal and democratic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and the juvenile's view of parental attitudes is discordant with the reality.

The juvenile delinquents' view of parental attitudes reflects the equalitarianism of the contemporary society but is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view of the parents.

## I. 서 론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에게 비친 부모의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비행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함과 그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비행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제반환경을 모두 다루려 한 나머지 공식통계에 의존한 실태과악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모의 태도영역을 거부적인 태도, 엄격한 태도, 간섭적인 보호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불일치태도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의 父母觀과 비행과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첫 단계로서 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父母觀의 관계, 그 다음 단계로서 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행내용 및 동기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비행청소년의 父母觀과 비행내용 및 동기와의 관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리하여 비행청소년이 처한 환경의 한 측면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비행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비행의 개념

비행(delinquency)이란, 넓은 의미에서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협의로 보면,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보통이다(Phillipson, 1971; 梁春, 1984). 즉, 비행이란, 성인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소년비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소년은 14~20세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刑事책임 있음), 촉법소년은 12~14세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刑事책임 없음), 우범소년은 12~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이 있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함으로써 주위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년경찰의 보도대상에는 불량행위소년과 요보호 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법률위반행위로부터 부도덕하다고 사료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소년비행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정의를 중고등학교 교육기와 대학초급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인 '12세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법률위반 또는 불량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비행(범죄행위)의 원인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세기 이전에는 범죄자의 체질이 정상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으며, 그 후, 유전학은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신박약이라는 이론을 이끌었다. 또한 내분비선 system의 개인적 특성과 정신적 갈등도 비행의 원인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이 허구이거나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오늘날의 이론은 비행의 주 원인으로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모순, 문화적 갈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본 考에서는 비행의 원인을 논제-비행청소년의 父母觀-와 관련지어 보기위해서 가정환경 요인들, 그리고 가정환경외의 요인들로 구분하여 보았다. 먼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외의 요인들을 간략히 보고, 그 다음으로 가정환경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외의 요인들로서는 크게 청년문화, 대중매체, 교우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문화는 오늘날의 사회화과정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사회화과정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개인의 입신출세, 경제적 성공만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욕주의적 태도와 가치관보다 순간적 쾌락을 추구하게 한다. 여기에 유해매체 등의 간접적 사회화를 통해 쾌락주의적 청년문화(심영희, 1987)가 등장함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된 비행이 늘어가고 있다.

또 요즈음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일반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유해한 영상은 청소년들에게 우연적인 학습기회를 주게됨으로써 청소년비행에 간접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정환경외의 요인들 중, 마지막으로 교우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한 특징인 군

집성경향으로 일상생활 중 교우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교우집단을 통해 비행집단과의 우연적 및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비행을 범할 기회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비행은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매우 복잡한 것으로 개인 및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그 근본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다른 연구들을 보기로 하겠다.

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변인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이 중에서도 결혼가족, 부모의 태도, 경제적 빈곤 등이 비행의 변인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결혼가족과 비행과의 관계는 결혼가족에 대한 개념과 측정에 있어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나 결혼가족이 비행의 일차적인 원인으로서의 중요변인인 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하고 있다. 결혼가족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외국의 경우, J.H. Rankin의 연구가 있고 한국의 경우, 김기두 및 최재석의 연구가 있다.

Rankin (1983)은 비행청소년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가정과 비행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결혼가정의 유형을 4개 범주, 즉 친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한 편의 부모만 있는 경우, 친부모가 모두 결혼된 경우, 한 편의 계부모만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 결혼가정에서 어느 편의 부모가 없는가의 문제는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현재 함께 생활하는 부모유형(실부모 또는 계부모)과 결혼된 부모의 수는 비행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김기두(1976)는 결혼가정을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의 사별, 이혼, 유기, 도망, 별거, 장기부재에 있는 가정으로 보고 비행·무비행소년을 대상으로 비교조사한 결과 결혼가정과 비행과는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최재석(1985)은 가족의 유형을 가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고 다시 전자를 6범주 즉, 건강한 親父母와 동거하는 자, 親父母와 동거하되 뚜렷한 문제(부모의 정신장애, 신체장애 등)가 있는 자, 한쪽 父母와 한쪽 繼父母와 동거하는 자, 片父와

동거하는 자, 片母와 동거하는 자, 親父母는 없으나 보호자(형 또는 누나, 조부모, 기타 친척 등)는 있는 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소년비행과 결손가족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전체 비행청소년의 다수가 실부모가 있는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부모가 있는 청소년의 비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sup>11)</sup>는 결손가족이라는 변인을 청소년비행을 설명해주는 주요인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그들의 비행동기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Glueck(1939)은 천명의 비행자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대다수 비행자의 가정조건은 성인과 청소년의 관습충돌, 바람직한 교육시설의 부족,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태도, 정서적 불안정, 결손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감독, 빈약한 행동모델 등과 같은 요인들로서 특징지워지는 경향을 밝힌바 있다. 즉 그는 결손가족을 여러 주요 변인들 중의 하나로 간주함과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주로 부모의 훈육방법 및 가족간 폭력을 통해 고찰되어져 왔다. 한국의 경우 부모들은 훈육철학에 있어서는 민주화되어지고 있는 반면, 실제의 통제행위에서는 그러한 훈육철학과 일관되지 못하고 벌과 규율이 조부모의 것보다 더 엄하고 가혹한데 특히 젊은 부모가 더 엄한 훈육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은, 1967). 부모의 훈육방법에 있어서 부모 양자가 모두 확고친절함이 이상적이지만 母의 맹목적 애애가 아닌 분별있는 엄격한 훈육방법이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더 큰 정도로 방어적 기능을 갖게되며(김기두, 1967)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거부는 부모에 대한 불만의 극대화로서 이어져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공성식, 1987). Martin(1987)은 부모의 태도 중 가족구성원들간의 폭력과 가족갈등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가정내 가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분노 또한 증가하며, 가정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특히 자녀에 대한 母의 폭력이 있을 경우 가정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나 보호자의 태도는 청소년비

행, 청소년가출(오도기, 1972)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청소년과 세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부조화는 가정을 긴장으로 이끌며 때때로 청소년가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row, 1965).

결손가정, 부모의 태도 외에도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온 요인으로 가정의 빈곤이 있다. Sutherland와 Cressey(1966)는 비행다발지역이나 빈민가와 같은 불량한 환경에 거주하면서 가정의 혼욕 및 감독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더욱 쉽게 비행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렇긴 하나 빈곤한 가정출신의 청소년이 부유한 가정출신의 청소년보다는 비행으로 구속되고 판결받을 기회가 높기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비행의 주 원인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비행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식통계에 의존하여 비행청소년의 가정환경분류별로 분석함으로써 실태 파악 연구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주변환경(가정, 학교, 사회)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반면, 비행청소년 자신들의 시각은 도외시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조사대상자의 父母觀 및 비행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비행

조사대상자의 재비행여부와 횟수, 재비행의 내용 및 동기, 그리고 최근의 비행내용 및 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비행내용과 동기 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서술하도록 하여, 회수 후 연구자가 그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비행내용과 동기는 다음과 같다.

##### ① 비행내용

조사대상자의 비행내용은 환각제 사용, 폭력, 절도, 강도, 강간의 5개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환각제 사용 : 본 조사에서는 본드흡입만이 해당되

는 사항으로, 그 외의 환각제 사용은 없었다.

폭력 : 조사대상자의 동료집단과 다른 청소년집단 간의 세력다툼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남의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은 제외시켰다.

절도 : 조사대상자 혼자 또는 동료집단과 함께, 남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소매치기, 도둑질, 주택 침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강도 : 조사대상자 혼자 또는 동료집단과 함께, 공갈, 협박, 폭행으로 남의 재물을 빼는 행위를 말한다.

강간 : 폭행, 협박, 기타 불법의 수단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비행동기

비행동기는 호기심에서, 화가 나서, 술에 취해서, 돈이 없어서, 기타 등 대표적인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에서 :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단지 해보고 싶은 충동으로 인한 내용을 포함한다.

화가 나서 : 시비로 인한 분노 또는 원한으로 인한 비행을 말한다.

술에 취해서 : 취중에 저지르게 된 비행을 말한다.

돈이 없어서 : 생활비, 유희비마련, 또는 허영심으로 인한 비행을 말한다.

기타 : 비행동기에 대해 '모르겠다', 또는 '그냥 심심해서', '영웅심에', '형들이 하라고 해서',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같이 있다 보니깐' 등의 내용으로서 이전의 4개 항목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비행동기를 포함한다.

## 2) 父母觀

조사대상청소년이 부모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거부적 태도, 지배적 태도, 보호적 태도, 복종적 태도, 모순·불일치태도 등 부모의 부정적 태도를 내용으로 하는 5개 영역을 父와 母 각각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3점척도로 구성하여 「상관없다」 또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에 1점, 「원한다」에 2점, 「매우 원한다」에 3점을 주었다. 여기에서 「상관없다」는 예비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각 문항의 문구상 부정문일 경우에 한해 수정되어진 항목이다. 이렇게 하여 각 영역별 평균을 내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영역의 부모의 태도 즉 부

모의 부정적 태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부모의 태도를 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父母觀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내용은 吳起善의 「어버리와 자녀관계진단검사」(한국상담심리학회, 코리안테스팅센터) 자녀용 설문지를 비행청소년의 부모관을 알아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택한 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이 내용의 신뢰도분석결과 父觀, 母觀 각각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7과 .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父母觀영역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거부적 태도영역

이 영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과 태도가 거부적 경향이 있는 경우로 자녀에 대한 애정결여, 원조 거부, 자녀의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 및 무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때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애정은 있으나 표현이 결여되어 있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이 두개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소극적 거부 : 자녀에 대한 무시, 방임, 무관심, 불신용, 악한 감정, 불일치 등의 태도를 말한다(1-6문항).

적극적 거부 : 자녀에 대한 체벌학대, 굴욕, 가혹한 요구, 보호양육의 책임방조 등의 태도를 말한다(7-12문항).

### ② 지배적 태도영역

이 영역은 자녀에 대해 지나친 지배력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고 절대적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엄격형 지배 : 자녀에게 애정은 있으나 늘 엄하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며 명령, 금지, 비판, 끊임없는 감독 등의 태도를 말한다(13-17문항).

기대형 지배 : 부모의 욕구, 야심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태도로 자녀의 소질, 능력, 적성, 희망을 무시하고 오직 부모가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따르게 하려는 형이다(18-21문항).

### ③ 간섭적인 보호태도영역

이 영역은 기대형과 공동된 부모의 감정이나, 자녀를 보다 좋게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세밀한 데까지 참견하고 돌보이주며, 되도록이면 도와주려하거나 지시하려는 경우를 말한다(22-26문항).

## ④ 복종적 태도영역

이 영역은 자녀의 요구·주장을 무엇이나 받아주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부모로 단순히 애정과다인 것만이 아니고 자녀에게 복종적인 봉사를 하는 것으로 부모 자신이 채우지 못한 감정을 그로부터 충당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익애형 복종: 지나친 사랑으로 자녀를 옆에 두고 시중드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알고 하찮은 일에도 상을 주고, 필요이상 돌봐주며, 나쁜 일에도 편들어 주는 형이다(27-28문항).

맹종형 복종: 모든 권한을 자녀에게 주고 부모는 모든 것을 지불하여서라도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이다(29-30문항).

## ⑤ 모순·불일치태도영역

이 영역은 어느 한 부모가 때와 경우에 따라 몸가짐과 태도에 모순을 갖고 있고 또 부모의 태도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부모측에서는 그와 같은 자신의 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모순적 태도: 자녀의 동일행동에 대해 때에 따라 다른, 일관성이 결여된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31-33 문항).

불일치 태도:父는 거부적, 母는 보호적이라든지 또는 母는 지배적, 父는 복종적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서로 다른 취급을 받게되는 형이다(34-36문항).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감별소의 12세이상 20세미만 청소년 3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곳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대다수(남자 약 500명, 여자 약 20명)가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3. 자료모집 및 처리

본 연구는 1988년 8월 20일 하룻동안 20명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별성이 약한 문항이나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본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1988년 9월 3일 하룻동안 318명의 비행청소년을 수용시설관계상 세 집단으로 나누어 차례로,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318부 모두 회수되었다. 본 연구

는 비행청소년의 父母觀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318부 중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청소년만을 골라 2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포, t-test, x<sup>2</sup>-test, F-test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먼저 그들의 부모유형에 있어 실부실모유형이 아닌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부모의 연령은 父의 경우 40~50대, 母의 경우는 30~40대가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체로 낮았다.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노동·기능직에 종사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낮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반수이상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그들의 2/3이상에 해당되는 170명(77%)이 도시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분 포	N	%
연 령	14세 미만	11	5.0
	14 ~ 15	42	19.0
	16 ~ 17	123	55.6
	18 ~ 19	45	20.3
교육정도	국 졸	6	2.7
	중 중 퇴	84	38.0
	중재학 및 졸	49	22.2
	고 중 퇴	60	27.1
	고재학 및 졸	22	10.0
부모 유형	실 부 실 모	131	59.3
	실 부 계 모	26	11.8
	계 부 실 모	6	2.7
	편 편 부	21	9.5
	편 편 모	35	15.8
	계 부 계 모	1	0.5
	기 타	1	0.5
의붓제유무	있 다	22	10.0
	없 다	199	90.0

형제순위	외동	17	7.7		
	장남	80	36.2		
	차남(중간)	46	20.8		
	막내	78	35.3		
가족원수	1 ~ 3명	29	13.1		
	4 ~ 6	159	71.9		
	7 ~ 9	31	14.0		
	10 이상	2	0.9		
父 母	31 ~ 40세	12	5.4		
	41 ~ 50	96	43.4		
	51 ~ 60	68	30.8		
	61 ~ 70	8	3.6		
	71세 이상	2	0.9		
	안 계시다.	35	15.8		
연 령	21 ~ 30세	1	0.5		
	31 ~ 40	57	25.8		
	41 ~ 50	98	44.3		
	51 ~ 60	40	18.1		
	61 ~ 70	4	1.8		
	안 계시다	21	9.5		
부  모 의 직 업	노동·기능직	136	43	61.5	1.5
	서비스관리직	25	8	11.3	4.0
	상업	21	16	9.5	8.0
	회사원·공무원	15	4	6.8	2.0
	고급공무원·기업관리직	6	0	2.7	0.0
	전문직	0	0	0	0.0
	기타	18	129	8.1	64.5
	소 계	221	200	100.0	100.0
부  모 의 교 육 수 준	무학(문맹, 국문해독)	8	17	4.3	8.5
	국민학교(중퇴·졸)	56	81	30.1	40.5
	중학교(〃)	56	58	30.1	29.0
	고등학교(〃)	54	41	29.0	20.5
	전문대학(〃)	2	2	1.1	1.0
	대학교 중퇴	2	0	1.1	0.0
	〃 졸업	8	1	4.3	0.5
	대학원 〃	0	0	0.0	0.0
	소 계	186	200	100.0	100.0
가 정 의 월 흥 수 입	10만원 이하	5	2.3		
	11 ~ 20	13	5.9		
	21 ~ 30	24	10.9		
	31 ~ 40	33	14.9		
	41 ~ 50	47	21.3		
	51 ~ 60	32	14.5		
	61 ~ 70	16	7.2		
	71 ~ 80	20	9.0		

주거소유형태	81 ~ 100미만	15	6.8
	100만원 이상	16	7.2
	자 기 집	100	45.2
	전 세 집	45	20.4
주거지역	전 세 방	29	13.1
	월 세 집	13	5.9
	월 세 방	29	13.1
	사 택	5	2.3
대 도 시	대 도 시	122	55.3
	중 소 도 시	48	21.7
	농 촌	47	21.3
	산 촌	2	0.9
	어 촌	1	0.5
	기 타	1	0.5
계		221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비행

비행	구분	N	%
	폭력	44	19.9
	절도	93	42.1
	강도	60	27.1
	강간	14	6.3
비행 동기	호기심에서	39	17.6
	화가 나서	17	7.7
	술에 취해서	38	17.2
	돈이 없어서	101	45.7
	기타	26	11.8
계		221	100.0

2. 조사대상자의 비행

조사대상자들의 재비행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에서 '아니오'에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221명 중 180명(81.4%)으로 대부분 재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비행경험이 있는 41명의 청소년들에 한해 조사한 비행횟수는 한 번이 24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이 11명(26.8%), 세 번이 5명(12.2%), 여섯 번이 1명(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최근 행한 비행별분포는 전체 221명 중 절도 93명(42.1%), 강도 60명(27.1%), 폭력 44명(19.9%), 강간 14명(6.3%), 환각제 사용 10명(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응답자들이

서술한 비행을 행한 상황의 공통점은 동년배집단과 함께 있을 때 비행이 행하여진 점이다. 이 점은 청소년이 그들의 집단(혹은 비행집단(juvenile gang)의 형성 및 접촉을 통해 비행을 범할 기회가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3. 비행청소년의 父母觀과 비행에 관한 분석

#### 1) 비행청소년의 父母觀

조사대상자들의 父母觀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F-test를 하였다. 그 결과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父觀에서는 父의 연령변인에 한하여( $p \leq .05$ ), 그리고 母觀에서는 의붓형제유무변인에 한하여( $p < .05$ ) 유의한 차이가 있었을 뿐, 그 외의 변인들에서는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의 변인들이 전체 父觀과 母觀과의 관계에 있어 유의성이 없었으나 父, 母觀의 하위영역에서는 유의성이 있었다. 즉, 父觀의 하위영역 중 적극적 거부태도관은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및 母의 연령에서, 엄격형지배태도관은 의붓형제유무 및 母의 연령에서, 그리고 간섭적 보호태도관은 母의 연령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母觀의 하위영역 중 불일치태도관은 부모유형, 父의 연령, 母의 연령 등의 변인들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 (1) 父觀

조사대상청소년들의 父觀은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표 3〉 父의 연령에 따른 父에 대한 거부태도관 (N=185)

변인	영역 구분	거부 태도관		
		N	M	S.D
父의 연령	31~40세	12	2.2778	0.3358
	41~50	95	1.9456	0.4389
	51~60	68	1.8064	0.4563
	61~70	8	1.6771	0.4352
	71세이상	2	1.7500	0.3536
	F		3.818**	

\*\* $P < .01$

※ 父觀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185이다. 父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186명이었으나 이 중 부모유형이 계부실모인 조사 대상자 1명이 父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특히 父의 연령은 父觀의 하위영역 중 거부태도관영역에서 유의성이 있었다(표 3). 父의 연령 중 70대이상(2명)을 제외시킬 경우, 비행청소년은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父가 덜 거부적으로 자신을 대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서,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보수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父母의 거부적 태도가 소년비행과 관계있다는 선행연구(Martin, 1987; 공성식, 1987; 김재은, 1967)와 일치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회와 오늘날 과도기적인 사회를 동시에 겪어온 연령이 낮은 父집단의 경우, 그 부적응상태가 연령이 높은 父보다 더 높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父에 대한 적극적 거부태도관은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母의 연령 등의 변인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父에 대한 적극적 거부태도관은 조사대상청소년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母의 연령 중 20대(1명), 60대(2명), 안계시다(20명)를 제외시킬 경우 母의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하위영역에서보다도 父가 거부적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린 연령일수록 자신에 대한 父의 관심이 크기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母의 연령이

〈표 4〉 변인별 父에 대한 적극적 거부 태도관 (N=185)

변인	영역 구분	적극적 거부태도관		
		N	M	S.D
연령	14세 미만	10	2.1500	0.3964
	14~15	33	1.8687	0.4943
	16~17	104	1.7436	0.5495
	18~19	38	1.6228	0.5018
	F		3.223*	
母의 연령	21~30세	1	1.3333	
	31~40	54	1.9691	0.5543
	41~50	77	1.7273	0.5136
	51~60	30	1.5778	0.5137
	61~70	2	1.6667	0.2357
	안계시다	21	1.6587	0.4699
	F		2.847*	

\* $p < .05$



父의 연령과 비교하여 다소 낮다고 할 때, <표 3>에서도 본 바와 같이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父의 거부태도를 강하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 청소년은 父母의 연령이 낮을수록 父의 거부적 태도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父觀의 하위영역 중, 엄격형 지배태도관은 의붓형제유무 및 母의 연령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즉, 의붓형제가 있는 경우, 父에 대한 엄격형 지배태도관에 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의붓형제가 있음으로써 청소년에게 내재된 갈등이 父로부터의 억압보다는 의붓형제관계에 대한 이해, 동일한 대우, 수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父에 대한 엄격형 지배태도관은 母의 연령 중 20대(1명), 60대(2명), 안계시다(21명)를 제외시킬 경우, 母의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父의 연령변인과 엄격형 지배태도관과의 관계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母의 연령변인에서 母의 연령이 낮을수록 父의 엄격형 지배태도를 원하지 않는 경향은 청소년이 보는 父의 태도는 물론, 母에 대한 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父에 의해 청소년과 母가 지배되어지는 관계에서 부적응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父觀의 하위영역 중 간

섭적인 보호태도관은 母의 연령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母의 연령 중 20대(1명), 안계시다(21명)를 제외시키면, 母의 연령이 40대(77명)인 경우, 평균점수(1.753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54명)가 평점 1.6037, 50대(30명)가 평점 1.5733, 60대(2명)의 평점 1.30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母의 연령이 30대, 40대 및 50대인 경우, 청소년에게 비친 父觀이 간섭적인 보호형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청소년에게 父의 지나친 간섭적인 보호형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청소년에게 父의 지나친 간섭 또는 기대가 압박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母의 연령변인에 한해 父의 간섭적 보호태도관이 유의한 차를 나타낸 점은 청소년이 보는 父의 태도는 물론, 母에 대한 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아서 지나치게 간섭적인 父에 의해 청소년과 母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母觀

비행청소년들의 母觀은 의붓형제유무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의붓형제유무는 母觀의 하위영역 중 모순·불일치태도관영역에서 유의성이 있었는데 이는 의붓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의붓형제가 없는 청소년보다 母의 모순·불일치태도를 더 원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표 7>. 이러한 차이가 父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볼 때 계부보다 계모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던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관계있다고 본다<표 1>.

母觀의 하위영역 중 불일치태도관은 부모유형, 父

<표 5> 변인별 父에 대한 엄격형 지배 태도관 (N=185)

변인	영역 구분		엄격형 지배태도관		
			N	M	S.D
의붓형제유무	있	다	22	2.0091	0.357
	없	다	163	1.8221	0.465
	t		2.22*		
母의 연령	21~30세		1	2.0000	
	31~40		54	1.9926	0.4497
	41~50		77	1.8312	0.4414
	51~60		30	1.6667	0.4823
	61~70		2	2.0000	0.8485
	안계시다		21	1.7429	0.3854
		F		2.425*	

\*p<.05

<표 6> 母의 연령에 따른 父에 대한 간섭적인 보호태도관 (N=185)

변인	영역 구분		간섭적인 보호태도관		
			N	M	S.D
母의 연령	21~30세		1	2.8000	
	31~40		54	1.6037	0.4876
	41~50		77	1.7532	0.4610
	51~60		30	1.5733	0.5112
	61~70		2	1.3000	0.1414
	안계시다		21	1.5429	0.3749
		F		2.662*	

\*p<.05

<표 7> 의붓형제유무에 따른 母에 대한 모순 불일치 태도관 (N=197)

변인	영역		모순·불일치 태도관		
	구분	N	M	S.D	
의붓형제유무	있	다	21	2.0952	0.521
	없	다	176	1.7983	0.570
		t	2.48*		

\*p < .05

※ 母觀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201부이다. 母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200명이었으나, 이중 부모유형이 편부인 조사대상자 1명이 母觀의 기록하였다. 母觀의 하위영역중 불일치 태도관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197부이다. 母모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165명이었으나 이 중 부모 유형이 실부실모인 자 1명, 실부계모인 자 1명이 母觀의 불일치 태도영역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편부인 자 1명, 편모인 자 33명이 母觀의 불일치 태도 영역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母觀의 불일치태도를 설명하기에는 불합리하므로 해석시에 제외시켰다.

의 연령 및 母의 연령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표 8>. 불일치태도는 자녀에 대한 父와 母간의 불일치를 말하므로 부모가 다 생존해 있는 경우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모유형중 편부, 편모를 제외하고 빈도가 적은 계부계모(1명)와 기타(1명)를 제외시켜 보면, 청소년에게 비친 母觀은 실부실모인 경우보다 실부계모, 계부실모일 경우 母의 불일치태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실부계모인 경우가 계부실모인 경우보다 母의 불일치태도를 더 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과 새 부모와의 부조화가 가정을 긴장으로 이끌고 때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row, 1965)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母에 대한 불일치 태도관은 父의 연령 중 70대이상(2명)과 안계시다(33명)를 제외시킬 경우, 父의 연령이 30대에서 50대로 높아질수록 母에 대해 불일치태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母觀이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父의 연령이 60대인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父가 보통 은퇴한 후의 연령인 60대일 경우, 그 전보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母와 더 잦은 불일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父의 연령이 50대에서 30대로 낮아질수록 청소년이 母에 대한 불일치태

<표 8> 변인별 母에 대한 불일치 태도관

변인	영역		불일치 태도관		
	구분	N	M	S.D	
부모유형	실부실모	130	1.8641	0.5731	
	실부실모	25	2.1733	0.5863	
	계부실모	6	2.0556	0.7123	
	편부	1	1.3333		
	편모	33	1.6566	0.5236	
	계부계모	1	1.6667		
	기타	1	2.0000		
		F	2.229*		
父의 연령	31~40세				
	41~50				
	51~60				
	61~70				
	70 이상				
	안계시다				
		F			
母의 연령	21~30세	1	2.6667		
	31~40	54	2.0000	0.6163	
	41~50	96	1.8785	0.5410	
	51~60	39	1.7179	0.5851	
	61~70	4	1.3333	0.4714	
	안계시다	1	1.3333		
		F	2.407*		

\*p < .05

도를 원하지 않는 경향은 젊은 연령의 父일수록 거부적이라는 앞서의 결과 <표 3>와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은 父일수록 보수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부장적 권위로써 母와 父간의 불일치태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父의 가부장적 권위는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母의 연령에 따른 母에 대한 불일치태도관을 보면, 母의 연령 중 20대(1명), 안계시다(1명)를 제외시킬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은 母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母에 대해 불일치태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母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母에 대한 불일치태도관이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母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母의 권위가 가정내에서 높아짐으로써 부모간의 권위에 있어서 그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일치태도관이 약해진다고 해석된다.

2) 비행청소년의 비행내용 및 동기

두번째 단계로서 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비행내용 및 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X<sup>2</sup>-test가 행해졌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비행내용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교육정도, 父의 연령, 주거소유형태 및 주거지역변인과, 비행동기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변인에 한해 유의성이 있었을 뿐 그 외 변인들에서는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1) 비행내용

<표 9>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교육정도, 父의 연령, 주거소유형태 및 주거지역변인과 비행내용과의

관계가 유의한 차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변인과 비행내용과의 관계는 각 연령별로 절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환각제사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폭력 사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강도범은 각 연령별로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물질만능주의의 팽배하에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도덕적 관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비행내용과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변인과의 관계에서는 교육정도별로 보아 중학교중퇴자(전체 221명 중 84명) 및 고등

<표 9> 변인별 비행 내용

(N=221)

변인	영역 구분	환각제 사용		폭력		절도		강도		강간		계		x <sup>2</sup>
		N	%	N	%	N	%	N	%	N	%	N	%	
연령	14세 미만	2	18.2	0	0.0	7	63.6	1	9.1	1	9.1	11	100.0	24.68430*
	14 ~ 15	3	7.1	3	7.1	23	54.8	13	31.0	0	0.0	42	100.0	
	16 ~ 17	5	4.1	27	22.2	47	38.2	34	27.6	10	8.1	123	100.0	
	18 ~ 19	0	0.0	14	31.1	16	35.6	12	26.7	3	6.7	45	100.0	
교육정도	국졸	0	0.0	1	16.7	4	66.7	1	16.7	0	0.0	6	100.0	36.81291**
	중학교 중퇴	7	8.3	13	15.5	37	44.0	21	25.0	6	7.1	84	100.0	
	중학교 재학 및 졸업	3	6.1	7	14.3	28	57.1	11	22.4	0	0.0	49	100.0	
	고등학교 중퇴	0	0.0	20	33.3	16	26.7	21	35.0	3	5.0	60	100.0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	0	0.0	3	13.6	8	36.4	6	27.3	5	22.7	22	100.0	
父의 연령	31 ~ 40세	3	25.0	0	0.0	8	66.7	0	0.0	1	8.3	12	100.0	35.66838*
	41 ~ 50	5	5.2	20	20.8	43	44.8	24	25.0	4	4.2	96	100.0	
	51 ~ 60	1	1.5	14	20.6	22	32.4	26	38.2	5	7.4	68	100.0	
	61 ~ 70	1	12.5	3	37.5	3	37.5	0	0.0	1	12.5	8	100.0	
	71세 이상 안 계시다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주거소유형태	자기집	2	2.0	21	21.0	38	38.0	33	33.0	6	6.0	100	100.0	32.68761*
	전세집	5	11.0	15	33.3	16	35.6	8	17.8	1	2.2	45	100.0	
	전세방	0	0.0	5	17.2	16	55.2	5	17.2	3	10.3	29	100.0	
	월세집	1	7.7	2	15.4	5	38.5	4	30.8	1	7.7	13	100.0	
	월세방	1	3.4	0	0.0	16	55.2	10	34.5	2	6.8	29	100.0	
	사택	1	20.0	1	20.0	2	40.0	0	0.0	1	20.0	5	100.0	
주거지역	대도시	7	5.7	29	23.8	49	39.3	29	23.8	9	7.4	122	100.0	31.77672*
	중소도시	1	2.1	8	16.7	21	43.8	14	29.2	4	8.3	48	100.0	
	농촌	1	2.1	7	14.9	23	48.9	15	31.9	1	2.1	47	100.0	
	산촌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어촌기타	0	0.0	0	0.0	0.0	0.0	1	100.0	0	0.0	1	100.0	
	기타	1	100.0	0	0.0	0.0	0.0	0	0.0	0	0.0	1	100.0	

\*p<.05    \*\*p<.01

학교중퇴자(전체 221명 중 60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학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소속감이 없으며, 비행집단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재학 및 졸업자(전체 221명 중 49명)의 경우가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점으로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또는 점차 늘어만 가는 재수생문제와 연결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父의 연령변인에 대하여는父의 연령이 40대(전체 221명 중 96명), 50대(전체 221명 중 68명)인 청소년이 많은 빈도를 나타냈는데,父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父에게 있어 40대, 50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시기로 가정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쁜 생활을 하는 탓으로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등한해지기 쉽기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또 주거소유형태별 비행내용은 대체적으로 절도, 강도 혹은 폭력, 강간, 환각제사용순으로 나타나 있다. 자기집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경우로 양분해 보면, 자기집소유자가 아닌 경우 더 많은 빈도(전체 221명 중 121명)를 보인다. 주거소유형태는 하나의 생활방식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역별 비행내용은 전체적으로 절도, 강도, 폭력, 강간, 환각제사용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지역이 중소도시인 경우는 농촌지역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절도·강도항목에서 농촌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도시」로 묶어서 주거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양분해 보면, 비행빈도는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도시와 같은 이질적 공동체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비행집단이 형성

될 때 청소년들이 이들과의 우연적 및 자연스러운 접촉과 교제를 통해 비행을 범할 기회가 높아진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이장현, 1967)와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2) 비행동기

〈표 10〉은 조사대상자의 연령변인과 비행동기와의 관계가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16~17세 연령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빈도(전체 221명 중 123명)를 보이고 있으며, 각 연령별로 비행동기는 「돈이 없어서」와 「호기심에서」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물질만능적 관념과 도덕의식의 결여가 비행과 직결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정을 비롯한 제반 사회환경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관심을 기울려야 하겠다.

3) 비행청소년의 父母觀과 비행

수집된 자료는 마지막 단계로서 조사대상자들의 父母觀이 그들의 비행내용 및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하였다. 그 결과 父觀에 대하여는 하위영역 중 간접적인 보호태도관에 한하여, 母觀에 대하여는 적극적 거부태도관, 엄격형 지배태도관 및 모순태도관에 한하여 비행내용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을 뿐, 그 외 父母觀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1) 父觀과 비행내용

父觀의 하위영역 중 간접적인 보호태도관과 비행과의 관계는 유의성이 있었다(표 11). 비행내용항목별로 환각제사용, 폭력, 절도항목에서 청소년은 父에 대해 간접적인 보호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나 강도항목에서 다소 감소하고 강간항목에서 다시 증가함을 나타냈다. 즉 강도항목에서 다소 차이

〈표 10〉 조사 대상자의 연령과 비행동기

(N=221)

변인	영역 구분	호기심에서		화가나서		술에 취해서		돈이 없어서		기 타		계		x <sup>2</sup>
		N	%	N	%	N	%	N	%	N	%	N	%	
연령	14세 미만	2	18.2	0	0	0	0	6	54.5	3	27.3	11	100.0	36.27434***
	14 ~ 15	6	14.3	3	7.1	2	4.8	27	64.3	4	9.5	42	100.0	
	16 ~ 17	25	20.3	9	7.3	17	13.8	57	46.3	15	12.2	123	100.0	
	18 ~ 19	6	13.3	5	11.1	19	42.2	11	24.4	4	8.9	45	100.0	

\*\*\*p<.001

〈표 11〉 父에 대한 간섭적 보호 태도관과 비행 내용 (N=185)

변인	영역 구분	간섭적 보호 태도관		
		N	M	S.D
비행 내용	환각제 사용	9	1.3778	0.2906
	폭력	38	1.5947	0.5019
	절도	76	1.6947	0.4302
	강도	51	1.6157	0.5151
	강간	11	2.0364	0.4802
F		2.997*		

\*p < .05

는 있으나, 비행내용이 중형일수록 父의 간섭적인 보호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父觀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父觀의 하위영역은 적극적 거부태도관, 엄격형지배태도관 및 간섭적인 보호태도관 등 3개 하위영역이었다. 이 중 간섭적인 보호태도관 영역에 한하여만 비행내용과 父觀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비행청소년은 父에 대해 적극적 거부, 엄격한 지배, 간섭적인 보호를 덜 원하고 있었지만 특히 父의 지나친 간섭 또는 기대하는 간섭적 보호태도는 비행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父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父의 태도에 있어서 父子관계의 갈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2) 母觀과 비행내용

母觀과 비행내용과의 관계에서는 母觀의 하위영역 중 적극적 거부태도관, 엄격형지배태도관, 모순태도관에 한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2). 비행내용항

목별로, 환각제사용, 폭력, 절도항목에서 청소년의 母觀은 적극적 거부, 엄격한 지배, 모순태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강도항목에서 다소 감소하고 강간항목에서 다시 증가하여, 강도항목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행내용이 중형일수록 母의 적극적 거부, 엄격한 지배, 모순태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행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母觀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나타난 母觀의 하위영역은 불일치태도관영역에 한하였으나, 母觀과 비행내용에서는 불일치태도관영역에 있어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으로 미루어 비행청소년은 母에 대하여 父와의 불일치·갈등·불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역할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母의 적극적인 거부, 엄격한 지배, 모순태도에 대하여 부정응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母에 대한 적극적 거부태도관에 대한 결과에 한해서는 父母의 적극적 거부태도와 비행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공성식(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父보다 특히 母의 폭력이 가정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킨다는 Martin(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엄한 훈육태도에 있어서 父의 비율은 비행소년이 무비행소년보다 높는데 반해(33.8% : 19.1%) 母의 비율은 반대로 무비행소년이 높게 나타난(15.3% : 21.1%) 김기두(196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母觀에 대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아서, 오늘날 가정에서는 母의 표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가족이 제공하는 정서적 안정의 중요성, 특히 청소년에 대한 母의 수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12〉 母에 대한 적극적 거부 태도관·엄격형 지배태도관·모순태도관 (N=201)

비행	영역 구분	적극적 거부태도관			엄격형 지배태도관			모순 태도관		
		N	M	S.D	N	M	S.D	N	M	S.D
비행 내용	환각제 사용	8	1.4583	0.5252	8	1.5252	0.5120	8	1.5000	0.5345
	폭력	42	1.6349	0.5788	42	1.6905	0.4149	42	1.6587	0.5126
	절도	81	1.8025	0.5472	81	1.7876	0.4294	81	1.8436	0.5299
	강도	56	1.6905	0.5707	56	1.7429	0.5281	56	1.7679	0.5892
	강간	14	2.0833	0.6723	14	2.0857	0.5855	14	2.1190	0.5789
F		2.474*			2.486*			2.649*		

\*p < .05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父觀은 父의 연령변인에 한하여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父의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父觀은 父가 덜 거부적이기를 원하였다. 비행청소년의 母觀은 의붓형제유무변인에 한하여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의붓형제가 있는 청소년이 의붓형제가 없는 청소년보다 母의 모순·불일치적 태도를 더 부정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청소년의 연령, 교육정도, 父의 연령, 주거소유형태 및 주거지역으로 나타났다. 비행동기는 청소년의 연령에 한해 유의성이 있었다.

셋째, 父觀, 母觀과 비행내용 및 동기와의 관계를 본 결과, 父觀의 하위영역중 간섭적 보호태도관과 母觀의 하위영역중 적극적 거부태도관, 엄격형 지배태도관 및 모순태도관과 비행내용과의 관계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父母觀의 하위영역은 父와 母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으로서, 엄격한 父, 인자한 母와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것이며, 오늘날 사회전반에 걸쳐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지녀야 함을 이상으로 하는 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성격으로, 청소년의 父母觀은 현 사회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전통적인 父母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 비행청소년의 父母觀인식은 父에 대하여 덜 거부적이기를 원하며, 母에 대하여는 모순·불일치 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父와 母에게 바라는 태도가 각기 다름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다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父母觀은 부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부모의 부적응상태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때 젊은 연령층 부모의 태도가 부적응상태임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서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범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부모들에게 자녀교육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조언해 주는 단체로서 영국의

OPUS (Organization For Parents Under Stress)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 비행청소년에 대한 포용적 접근의 대책으로, 한국에서도 제안되어지고 있는 사회내 교정제도로서 보호관찰법의 시행계획은 바람직한 제안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무비행청소년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비행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소, 복지시설을 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청소년에 관한 실태분석 및 교육사업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소년감별소에 수용되어 있는 비행청소년만으로 한정시킨 경험연구에 불과하다. 비행이 단지 한 요인의 산물로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회인구학적 변인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사회심리학적 변인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점진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리라는 추측과 함께 본 연구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註 1) 法務部保護局, 「非行少年統計」, 1987, pp. 40-41.  
 孔成植, “青少年犯罪와 家庭環境間的 關係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198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통계월보」 제 30권 제 8호, 1988, 8, pp. 94-95.  
 金光億, “青少年과 家庭(1) - 家族의 役割構造와 青少年 -”, 「現代社會와 青少年」,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金箕斗, 「韓國少年犯罪研究 - 現象 · 原因 · 豫測 -」, 서울, 박영사, 1967, pp. 111-112, 125-126.  
 金在恩, 「韓國家族의 心理」, 이화여대 출판부, 1987, 233.  
 金玄操, “都市青少年犯罪에 關한 社會學的 考察 - 都市生態學的 要因分析을 中心으로”, 「慶尙大論文集(社會絲篇)」, 제 22집 제 2호, 1983, pp. 129-147.  
 沈英姬, 「批判犯罪論 - 逸脫과 統制의 分析 -」, 서울, 汎文社, 1987, pp. 313-314.  
 梁春,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 서울, 정음사, 1984, p. 76, 101.  
 吳道基, “家出青少年에 對한 研究 -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 「師大論文集III」, 제 3집, 조선대학교, 1972, pp. 9-19

- 李璋鉉, “現代社會에 있어서 少年非行化—社會學的 分析—”, 「韓國文化研究論業」, 제 11집, 이화여대, 1967, pp. 137-161.
- 이춘재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pp. 106-109, p. 335.
- 이훈기, 「現代心理學概論」, 서울, 正民社, 1984, p. 89.
-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1985, pp. 284-296.
- Crow, D. and Crow, A., *Adolesc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2nd ed. New York, Mc Graw-Hill Book Company, 1965, p.329.
- Glueck, S. and Glueck, E.T., *One Thousand Juvenile Delinquents, Their Treatment by Court and Clinic*, Harvard University Press, 1939, pp.80-82, Crow, D and Crow, A., 상계서, p.329, 재인용.
- Martin, M.J.,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Outcomes of 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No. 1, 1987.2, pp.165-171.
- Mowrer, E.R., *The Family: its Organization and Dis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2.
- Phillipson, M., *Sociological Aspects of Crime and Delinquen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Faul, 1971, p.117.
- Rankin, J.H.,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Social Problems*, Vol. 30, 1983, pp.466-479.
- Sutherland, E.H. and Cressey, D.R.,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lphia, J.B.Lippincott, 1966, p.223.
- Wolfe, D.A., et al., “Children of Battered Women: The Relation of Child Behavior to Family Violence and Maternal 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3, No. 5, 1985, pp.657-665.